

경제

광주 경기 회복세... 건설만 '얼음장'

광공업 생산 32% 증가 전국 세번째 높아

취업자 4.5% ↑ 1위 ... 소매 판매도 늘어

통계청, 1분기 경제 동향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주의 건설경기는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 1·4분기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전자부품 및 영상음향통신

(86%), 자동차(27.1%) 등의 호조로 광공업 생산이 전년동분기 대비 32.1% 증가했다. 충남(45.6%), 경기(34.2%)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전국 평균은 25.6%였다.

같은 시기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 가전제품, 반도체, 석유제품 등이 증가하면서 전북(113.0%), 경기(92.2%), 충남(61.2%)과 함께 광주·전

남지역도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광주는 가전제품(65.9%), 반도체(51.3%), 수송장비(31.9%)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47.6% 늘었으며 전남은 석유제품(116.8%), 철강제품(61.9%), 화공품(45.6%) 등의 상승세에 힘입어 48.6% 증가했다.

특히 광주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4.5%가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대구(3.1%)와 인천(3.0%)이 뒤를 이었다. 전남의 취업자 수는 0.2% 늘어난데 그쳤다.

백화점이나 마트 등 대형소매점 판매도 광주·전남 모두 4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각각 9.0%, 6.4% 늘어났다. /은민기자 emlee@kwangju.co.kr

경기 회복세에 교통과 식료품, 비주류 음료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물가도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전남은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해 전북(3.2%)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으며 광주는 2.7%로 전국 평균과 같았다.

반면 같은 기간 건축 착공 면적은 전남의 경우 44.8% 증가했지만 광주는 36.1%나 감소해 부산(-68.2%)에 이어 두 번째로 건축경기가 위축된 지역으로 꼽혔다.

이는 상업용과 주거용 착공이 크게 늘어난 서울(266.0%)과 울산(233.0%), 인천(125.4%)은 물론 전국 평균(44.0% ↑)과도 대조되는 것이다. /은민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10곳 중 4곳 "경영 어렵다"

"납품물량 감소" "원자재값 상승" 하소연

광주·전남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10곳 중 3~4곳이 납품물량 감소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지역 내 대기업 협력업체 120개사를 대상으로 '경영 실태 및 애로 조사'를 한 결과, 35.3%가 '경영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다'는 업체는 47.9%, '괜찮다'는 업체는 15.1%였다. 이는 지난해 4분기(32.0%)보다 높아진 것이다.

협력업체들은 대기업의 납품물량 감소(43.9%)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유동금(41.5%), 납품단가 인하 요구(12.2%), 대금결제 장기화(2.4%) 등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협력업체 85%가 전 분기

보다 매출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 50% 이상 감소 업체가 2.5%에 달했고 20~50% 감소 업체는 20%, 미만 감소 52.5% 등이었다. 정상 수준은 15.0%에 그쳤다. 외상 구입대금 결제는 30일 이내 지연업체가 52.2%에 달했으며, 한달 이상 지연 업체도 7.5%로 나타나 경영애로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자금난 때문에 상당수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13.9%)하거나, 세금 및 공과금을 체납(17.9%)하고 있었다.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도 15.4%나 됐다.

이들 협력업체 중 55%는 광주·전남 경기 상황을 위기 국면으로 보고 있었다. 지난해 3분기 67.3%에서 4분기 46.2%로 떨어졌다가 다시 50%선을 넘어선 것이다. 금

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위크아웃, 남양건설·금광기업·새한철강 등 중견업체들의 잇단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협력기업의 경영난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협력업체들은 경영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제대로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32.6%), 지역 내 대기업 유치 및 지역화대(31.2%), 자동차·가전 중심의 지역산업 다변화(14.2%), 지역제품사주기 운동 확대 전개(11.0%),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6.4%) 등을 들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2일 오전 11시 광주 시 서구 상무지구 센트럴호텔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연속회'를 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차 미소금융

광주지점 문열어

서구 농성동 현대자동차 사옥

저소득층의 경제 자활을 위한 현대차 미소금융 광주지점이 12일 문을 연다.

11일 현대캐피탈에 따르면 현대차 미소금융재단은 12일 오전 광주시 서구 농성동 현대자동차 사옥 내에 마련된 현대차미소금융 광주지점의 개소식을 열고, 이날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전국 4호점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황유재 현대캐피탈 경영지원본부장과 홍범식 미소금융중앙재단 사업본부장, 송천권 기아차 광주공장장, 강박원 광주시의회의장, 오함섭 광주 서구의회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대차 미소금융재단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대출을 신청하면 대상자 선정 후 연 2%~4.5%의 금리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창업 컨설팅과 신용회복·자활지원 상담, 취업·직업훈련 정보 제공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위해 연간 200억원씩 10년간 총 2000억원을 출연해 미소금융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대차 미소금융 광주지점 개소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미소금융은 총 5곳으로 늘어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보화센터 개소 1주년'

11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정보화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에서 임성균 청장과 직원들이 무결점 업무처리를 다짐하고 있다. 정보화센터는 호남권 세무서의 전산업무를 통합·관리한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광신호 초고속 대량 전송 모듈 개발

한국광기술원 ... 구조 집적화 가격 낮춰

광모듈·커넥터·광섬유·스플리터 등 관련된 부품을 하나로 묶은 '내장형 광전 인쇄회로기판(PCB) 모듈'이 개발됐다.

11일 한국광기술원에 따르면 광기술원 나노광전융합연구센터(센터장 노병설)와 광통신업체 뉴프렉스(대표 임우현) 연구팀이 하나의 광신호를 여러 개의 고해상도 영상 장치와

초고속 네트워크 장치에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성 광회로를 내장한 광전 PCB 모듈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 모듈은 점대점(Point-to-Point) 신호 연결만 가능한 기존 영상 광전 PCB와 달리 점대다점(Point-to-Multi Points)으로 데이터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대

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기가급으로 고속 전송할 수 있도록 성능을 높였다.

광모듈·커넥터·광섬유·스플리터 등 기존의 복잡한 연결 구조를 단순화하고 집적화함으로써 광모듈의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됐다.

노병설 나노광전융합연구센터장은 "이 모듈을 적용하면 대형마트나 지하철, 회의실, 강의실, 의료기기 등에서 디스플레이 장치를 초고해상도로 여러 대에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타이어 메르세데스-벤츠 장차

중형 밴 '스프린터' 이달부터 공급

금호타이어는 11일 유럽과 북미 등지에서 판매되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중형 밴인 '스프린터(Sprinter)'에 이달부터 신차 장착용(OE·Original Equipment) 타이어가 장착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국내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메르세데스-벤츠에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으며, 승용차 'A-클래스'와 다목적 밴 '비아노(Viano)', 트럭 '악트로스(Actros)'에 이어 상업용 중형 밴 '스프린터'까지 라인업이 확장됐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품질을 객

관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 해외시장에서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은 물론, 교체용 타이어 시장에서의 매출 파급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벤츠의 다른 프리미엄 차종에 대한 타이어 공급도 협의 중이다.

손두형 금호타이어 OE영업담당 상무는 "세계적인 명차 메르세데스-벤츠와의 파트너십 강화는 금호타이어의 기술력과 품질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선운지구 33필지 경쟁입찰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광주 선운지구 상업용지 10필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19필지, 주차장용지 3필지, 유치원용지 1필지 등 33필지를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

용도별 공급 면적과 예정 가격은 ▲상업용지 450~1606㎡, 3.3㎡당 390만~469만원 ▲근린생활시설용지 413~828㎡, 3.3㎡당 314만~430만 ▲주차장용지 1034~3089㎡, 3.3㎡당 149만~221만원 ▲유치원용지

1041㎡, 3.3㎡당 208만원이다. 대금은 2년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광주 광산구 광동산단과 호남대가 인접한 선운지구는 62만6000㎡ 면적에 47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내년 6월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다. 특히 사업지구 전면에 황룡강이 흘러 자연 경관이 우수하다.

분양신청은 19~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LH 토지청약시스템(www.buy.lh.or.kr)으로만 가능하며, 입찰결과는 20일 오후 6시 이후 토

지청약시스템 알림마당에 게시될 예정이다. 문의 062-360-3172.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타이어는 현재 벤츠의 다른 프리미엄 차종에 대한 타이어 공급도 협의 중이다.

손두형 금호타이어 OE영업담당 상무는 "세계적인 명차 메르세데스-벤츠와의 파트너십 강화는 금호타이어의 기술력과 품질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청약시스템 알림마당에 게시될 예정이다. 문의 062-360-3172.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Financial summary table with items like 코스피지수 (1,670.24), 코스닥지수 (512.22), 금리 (3.64%), and 원·달러 환율 (1,135.70원).

아리울공인중개사 (063)583-7788. Real estate services including land and house sales.

대인동상일부동산. Real estate services including land and house sales.

상무랜드공인중개사. Real estate services including land and house sales.

현대공인중개사. Real estate services including land and house sales.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에셋코리아. Real estate services including land and house sales.